

월세 근로자·전통시장 이용자 혜택 확대

■ 올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유학생 둔 '기러기 아빠'도 교육비 공제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도 중요한 제테크다. 올 9월부터 봉급에서 매달 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 가량 줄면서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면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사는 집이 월세라면 소득공제=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근로자의 연소득 규모가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

터는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미혼이나 사회초년생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받도록 받아야 한다.

▲직불카드 쓰고 전통시장 이용=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연말까지 직불카드를 주로 쓰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불카드 공제율이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도 3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해외 유학생 자녀 둔 기러기 아빠·엄마도 혜택=유학중인 고교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교육비가 소득 공제된다. 올해부터는 유학 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과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확인=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일마나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 '조회·계산'코너를 클릭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교복구입비를 비롯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반영하는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우리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이번달에 달성한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 조성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광주전남 사랑기금 조성 사업 등 새로운 사회환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 '情나눔' 참여를 봉사단 운영, 광주전남 가구기 사업 참여, 우수고객 사은행사, 소비자 초청 영화시사회 진행 등 "情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주) 성동읍 광주지점장은 "情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여 소비자에 다가가는, 소비자에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지역 사랑기금 2천만원

3년간 2억원 달성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대표:김인규)는 11월 오전 광주시청에서 지난 8월~11월까지 조성된 광주전남 사랑기금 11차 조성금 2066만4040원을 이병록 광주시 행정부시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선정채 부회장, 하이트진로(주) 전남본부장 정재덕, 상무, 하이트진로(주) 성동읍 광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참여 "情나눔 지역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 시 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11차에 걸쳐 기탁된 2억원은 2010년 1월~2012년 11월까지 조성된 사랑기금으

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확인=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저축도 확인=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불황 대비 자본금 확충하라”

금감원, 보험사에 증자 권고

'저금리·저성장'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보험업계에 금융당국이 증자(자본금 확충)를 주문했다.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 탓에 내년부터 역마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건전성 규제가 차츰 강화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증자를

권고했다. RBC 비율은 은행으로 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다. 이 비율이 낮으면 보험금 지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보험사다. 100%를 밑돌면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에 따른 정상화 요구)를 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증자로 추가 자본을 투입해 RBC 비율을 200% 이상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오늘 쉽니다” 전국 대형마트가 첫 번째 자율휴무에 들어서기 하루 전인 11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매일 2·4주 수요일 자율휴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전남에서는 여수 3곳, 나주와 광양 1곳 등 대형마트 5곳을 비롯 SSM(여수·광양 각 2곳, 곡성·고흥·영암 각 1곳) 7곳이 문을 닫는다. /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경조금 이체'

光銀, 폰뱅킹 업그레이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스마트폰뱅킹서비스 이용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잔액조회', '경조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퇴직연금서비스는 지방은행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KJB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해 본인의 퇴직연금 잔액 및 수익률 등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본인의 노후계획 수립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조금 이체서비스는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위로의 문구를 경조금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형마트·SSM 내일 첫 자율휴무

전국 289곳...전남 12곳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12일 첫번째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전남에서는 여수 3곳, 나주와 광양 1곳 등 대형마트 5곳을 비롯해 SSM(여수·광양 각 2곳, 곡성·고흥·영암

각 1곳) 7곳이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목포·순천·화순·무안지역은 제외된다.

전국적으로는 이마트 147개 점포 가운데 111개점이, 홈플러스 133개 점포 중 99곳이, 롯데마트 100개 중 79개가 둘째주 수요일인 12일에 첫번째 자율휴무에 들어간다.

앞서 대형마트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는 지난 3일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 자율휴무를 실시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협회에 따르면 12일 휴무를 실시하는 점포는 대형마트 28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932개 등 총 1216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카드사, 부가혜택 더 줄인다

카드사들이 경영난 심화로 내년에 부가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더욱 까다로워지며 할인과 포인트 적립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11월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SK카드 등은 내년 부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월 이용액을 기존보다 최대 100% 늘리고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20~80% 가량 줄이기로 했다.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부가 혜택을 누리던 시대는 끝나고 1장만 열심히 써도 영화관 할인 등을 받기 어렵게 됐다.

전월 이용 실적에는 현금서비스, 세금, 등록금 등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 적어도 매월 50만원 정도는 카드로 결제해야 줄어드는 부가 혜택이라도 구경할 수 있는 셈이다.

카드사의 이런 행보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신용 대출 규제 강화, 경기 불황 장기화 등으로 수익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카드사의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KB국민카드는 내년 4월부터 주력카드인 '해답카드'에 통합 할인 한도를 둔다. 전월 실적이 30만~70만원이면 할인 한도가 1만원, 70만~140만원이면 2만원으로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1월 1일부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피자헛과 T.G.I.F 10% 할인을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3월에 홈플러스 쿠폰리카드 포인트 기본 적립률을 0.45%로 기존보다 0.05% 포인트 줄인다.

현대카드는 7월부터 'M포인트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엘리시아

1.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2.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3.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엘리시아 컨벤션 행사예약 특별할인

★ 평일런치 : 25,900원 > **23,000원**

★ 평일디너 : 30,900원 > **26,000원**

★ 주류(맥주, 소주) : 3,500 > **3,000원**

※ 상가 혜택은 60인 이상 예약시 가능합니다

· 행사기간: 12월 1일부터

송년회, 단체모임, 세미나, 사은회, 칠순/회갑연, 돌잔치... 등

120인차임 프로젝트

최신 영상 및 음향시설 완비

60석/80석/100석/120석

※ 추가옵션- 전문MC, 노래방기기, 밴드 (추가 비용 있음)

ELYSIA
엘리시아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